

2021

SU-대학혁신지원사업 ———
————— 웹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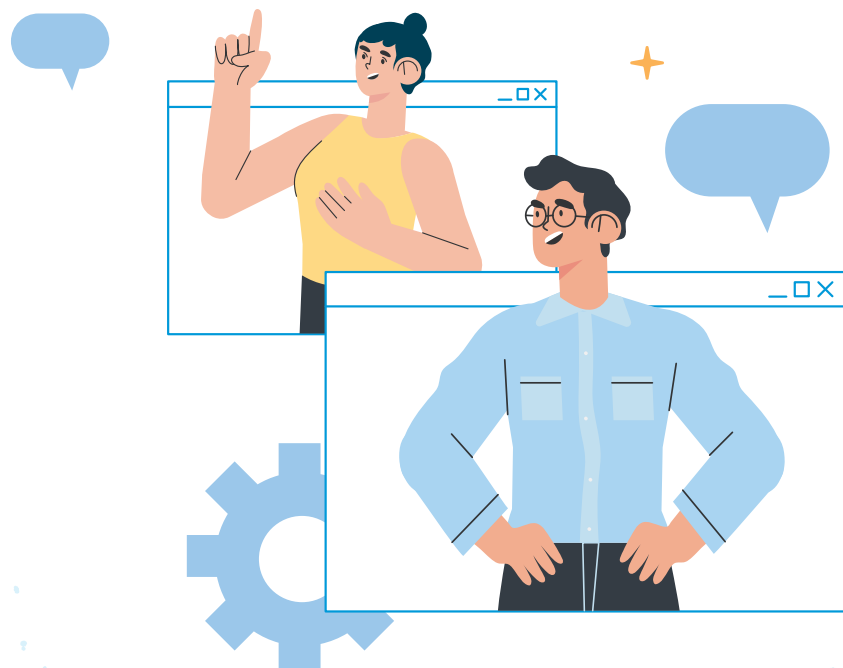


SU-대학혁신지원사업
2021 웹소식지

contents



본 웹소식지는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재학생 홍보단인 「SU-PANEL」 구성원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세부 프로그램들을 살펴, 내용을 직접 구상 및 취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웹소식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재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SU-Book 서포터즈 작성자 : 나상은	2
U2Can 작성자 : 조윤아	5
집단상담 프로그램 작성자 : 양은솔	9
MVP+ 교육 작성자 : 김예동	12
글로벌투게더 외국인 말하기대회 작성자 : 조윤아	14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작성자 : 양은솔	17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지도사 교육 작성자 : 나상은	20
HOPE CAMP 작성자 : 김예동	23

지혜와 인성의 보고 학술정보원의 든든한 SU-Book 서포터즈 6기

작성자 | 나상은



우리 대학 학술정보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지식 축적을 위한 여러 가지 강연을 주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29초 영화제와 같은 흥미로운 이벤트, 양질의 도서 추천 등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마련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활동의 기획과 보조에도 우리 대학 학생들의 열정과 노고가 숨어있다는 사실! 바로 학술정보원 서포터즈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 학술정보원은 우리가 책임진다!

삼육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는 학기마다 우리 대학 학술정보원의 각종 소식과 도서 추천 및 행사 보조를 위한 학술정보원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2021학년도 1학기의 경우, 2021년 3월 중에 모집하여 10명의 인원을 모집하였다. 기본적으로, 삼육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본교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한데, 홍보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기획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의 경우 본 서포터즈 활동에 적합한 인재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Adobe Photoshop, Adobe After Effects, Adobe Premiere Pro, 미리캔버스, 망고보드 등 이미지 및 영상 편집툴을 활용할 줄 알면 서포터즈 활동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뽑힌 10명의 학술정보원 서포터즈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거치며, 학술정보원과 관련된 기획 기사를 작성하고, 이벤트 및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Facebook, Instagram 등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우리 대학 학술정보원의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학술정보원 서포터즈들의 활약으로 학생들은 학술정보원의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을 인터뷰 한 결과, 학술정보원 서포터즈들의 활약으로 도서관이 단순히 독서를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닌 지혜와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 학술정보원 서포터즈 발대식 현장

2021년 3월 23일 학술정보원 서포터즈 SU-Book 6기의 발대식이 삼육대학교 학술정보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학술정보원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환영 속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각 서포터즈들의 열띤 포부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서포터즈들은 경영학과, 간호학과 등 다양한 학과가 섞여 있어 각 학과를 대표하는 학생들이 우리 대학 학술정보원에 바라는 바를 종합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학술정보원 서포터즈 임명장을 수여한 후, 첫날부터 각자 준비해 온 학술정보원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사태에 걸맞게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자기계발 및 취미 활동서 추천에 대한 의견, tictok 등에 사용되는 짧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학술정보원을 홍보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흥미롭고 참신한 의견이 나와 이번 학술정보원 서포터즈들이 우리 대학을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학술정보원의 서포터즈 담당 선생님께서도 이번 학기 서포터즈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첫날부터 화기애애 서로 소통하며 친해지는 모습을 보며 남다른 기대와 뿌듯함을 느꼈다고 하셨다.



+ 학술정보원과 소통하려면?

우리 대학 학술정보원은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SNS 채널은 Instagram과

Facebook이 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이달의 추천도서는

물론, 시험기간 동안 학술정보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도서 대출은 어떻게 하는지, 특강 소개 등 신입생, 편입생 및 기존 재학생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다.

에브리타임을 통한 학술정보원의 정보 전달도 자주 있다. 우리 대학 에브리타임 홍보게시판에 들어가면, 학술정보원 서포터즈들이 올려주는 다양한 도서 소개 및 논문 검색 서비스 소개, 학술정보원의 다양한 이벤트 등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학술정보원에 대한 궁금증이나 추가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 SNS에 댓글을 달거나 전화 또는 DM(Direct Message)을 보내면 학술정보원 서포터즈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술정보원 서포터즈 인터뷰 나상은(18학번)

Q. 학술정보원 서포터즈를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소에 우리 대학 학술정보원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거나, 전공 관련 과제를 할 때도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서포터즈를 하면서 학술정보원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으면 했고, 학술정보원의 정보를 필요한 주변 친구들에게도 제공하고 싶어서 서포터즈를 지원했습니다. 덕분에, 제 주변 동기들이 학술정보원 운영시간이나 도서를 빌리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서포터즈를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Q. 학술정보원 서포터즈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소통방법과 행사 기획력에 관한 역량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소통이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우리 대학 학술정보원을 대표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할지 고민하고 또 이용자들로부터 피드백도 받으니까 어떻게 소통해야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기획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회의를 하니 다양한 이용자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물론, '기획은 차근차근해서 빈틈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Q. 학술정보원 서포터즈를 하며 뿌듯했을 때가 언제예요?

행사를 진행할 때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아무래도 어떤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를 늘리고 홍보하고자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해주길 바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Q. 다음 기수 학술정보원 서포터즈를 지원하려는 학우에게 하고 싶은 말?

디자인 툴이나 영상 제작 툴을 못한다고 서포터즈를 망설이지는 않았으면 해요. 물론 툴을 잘 이용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사용해보고 관심을 갖고 배우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도 정말 좋거든요. 뭐든 도전해보고 노력해 나가며 발전해나가는 자세가 도움이 될거예요. 그리고 학술정보원을 평소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었으면 합니다. 학술정보원은 공부도 할 수 있고, 영상도 보고 책도 읽을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기도 하고 다양한 행사가 이뤄지는 행사의 장이기도 하고요. 평소에 학술정보원을 이용하면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서포터즈를 준비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개선하고 싶었던 점을 고쳐나갈 수도 있고, 회의 때도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면접 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삼육대학교 학술정보원

3월 · 6

안녕하세요! 학술정보원 서포터즈 6기입니다.
요즘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힘드시죠?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방학이네요~ 힘내주세요!
방학 때 자기계발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책은 '일본어 학습서'입니다!
올 여름 우리 학술정보원과 함께 자기계발이나 취미로 제2외국어를 공부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5개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삼육대학교 학술정보원

5월 31일 · 6

안녕하세요,
삼육대학교 학술정보원 서포터즈 6기입니다.

현재 알려진 영화가 된 원작인 소설책들을 소개합니다!
모두 확인해보고 한 권씩 읽어보는 재미를 느껴보길 추천드려요.)



4개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f 페이스북 페이지 | 삼육대학교 학술정보원

Instagram | @syu_library

홈페이지 | lib.syu.ac.kr

누구나 악기를 배울 수 있다! U2Can!

작성자 | 조윤아



삼육대학교의 U2Can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레슨을 통하여 전인교육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정 인원수 이상이 되어야 실행하는 타 프로그램과 달리, 단 한 명의 학생이 신청한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콘서트바토리 연습실, 악기, 뛰어난 강사진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원활하게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번 21학년도 1학기 U2Can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레슨과 대면 레슨이 병행되어 운영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학생, 강사 그리고 학교 덕분에 원활한 운영이 가능했다. 참여 중인 재학생 및 강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더 많은 재학생들이 U2Can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U2Can 참가 학생 인터뷰

차희원(약학과)

Q. 'U2Can'에서 배우고 있는 악기와 이에 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은혜 선생님과 3년째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악기를 대여해 주셨는데, 올해 초에는 제 악기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Q. 'U2Can'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3학년 때 학과 교수님께서 학교의 좋은 프로그램이라며 U2Can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학생이 아닌 교수나 강사처럼 수준 높은 선생님들과 악기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고, 비용이 저렴해서 더욱 끌렸습니다.

Q. 'U2Can'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 그리고 'U2Can' 프로그램만의 장점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악기를 배우기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스스로 많은 변화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제 악기가 생기기 전과 후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악기를 연주하고 있으면 굉장히 물입이 잘되고, 조금씩 발전하는 제 모습도 정말 뿌듯합니다. 무엇보다 악기 연주가 매우 재미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땐 공간 확보를 위해 연습실을 빌려야 하고 악기를 손보는 등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은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주의가 환기되고, 일상에 상쾌한 바람이 부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제 악기가 생기 이후로 연습도 자유롭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U2Can 프로그램 자체가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다시 없을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이라면 제가 아직 초보라 항상 선생님께 저의 부족한 연주실력을 강제로 들려드리는 거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웃음) 혹시 저처럼 초보가 아니라 기본 실력을 갖추고 있는 분이라면 최고의 선생님과 함께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Q. 'U2Can'은 수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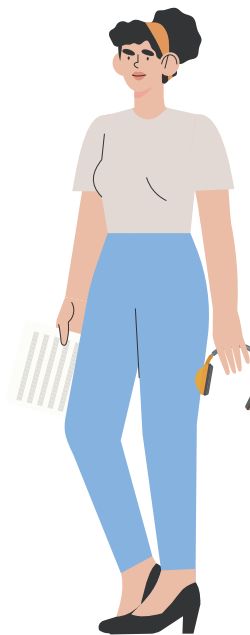
학기 초에 선생님과 매치되고, 이후 선생님과 주 1회 정도 스케줄을 잡아서 개인 레슨을 받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 연습실도 학교에서 대여할 수 있는데, 꼭 수업이 아니라 개인 연습을 할 때도 연습실 대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습 열기가 대단해서, 연습실을 빌릴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Q.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이번 학기 '2021-1 U2Can'의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비대면 학습이 자유로워진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비대면으로도 레슨이 가능해졌기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Q. 이 프로그램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세요.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 U2Can 참가 학생 인터뷰

나태규(신학과)

Q. 'U2Can'에서 배우고 있는 악기와 이에 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악을 배우고 있고 지난 학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두 번째로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Q. 'U2Can'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신학과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노래를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도움을 받고 싶어서 U2Can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지금은 자신감 있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U2Can'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 그리고 'U2Can' 프로그램만의 장점을 소개해 주세요.

좋았던 점은 1대 다수가 아닌 1대1 레슨을 통해서 맞춤형 수업과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악은 몸 내부에 있는 근육들과 기관들을 사용해야 해서 전문적인 지도가 없다면 처음 배울 때는 다소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사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성악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악기들을 배울 수 있고, 악기가 없더라도 학교에서 대여를 해줘서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밖에서 레슨을 받게 되면 훨씬 더 비싼 금액으로 레슨을 받아야 하는데 학교에서 하게 되면 전문 강사진 선생님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레슨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Q. 'U2Can'은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나요?

한 학기에 정해진 시간만큼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30분씩 12번, 45분씩 9번 혹은 60분씩 6번 등 정해진 강사 선생님과 논의 후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레슨이 진행이 됩니다. 모든 수업은 강사님과 꾸준히 소통 후 대강당 2층에 있는 레슨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Q. 이 프로그램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세요.

평소 음악을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

+ U2Can 강사 인터뷰

이은혜(바이올리니스트)

Q. 'U2Can'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첼리스트 신인균 교수님의 추천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그동안 진행해왔던 것과 비교했을 때, 올해 '2021-1 U2Can'의 변화(달라진 점)는 무엇인가요?

일단 마스크를 끼고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마스크를 끼고라도 진행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는 지하 콘서트홀 연습실에서 레슨을 했었는데 이제는 대강당 2층 레슨실에서 하게 되어서 그 부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콘서트홀 총괄 조교님께서 공지사항이나 학기 중 진행사항을 항상 친절하고 세심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생들도 악기를 빌리러 가거나 레슨실 키를 가지러 갈 때 늘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Q.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한테 벌써 3년간 꾸준히 배우고 있는 약학과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바이올린 배우면서 너무 즐겁다고 항상 이야기해줍니다. 바이올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본인 악기도 따로 구매하고 연주곡도 연습하는 등 열심히 수업에 참여합니다. 성장하는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곤 해요.

Q.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개개인의 취미 생활을 독려할 수 있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취미 생활이나,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취미 생활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 저의 몫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학생들이 바이올린을 접해 봄으로써 비록 소리 내기 어려운 악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음, 한 음 소리를 낼 때의 즐거움과 또 연주곡을 연주할 때의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Q. 어떠한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음악 프로그램은 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리 내는 것이 어렵고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공부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음악으로 해소한다고 생각하면 접근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 같습니다.

Q. 이 프로그램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의 표어처럼 "You, too can!" 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 □ _

학교를 졸업한 뒤 자신의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취미활동이다.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전공학위 취득만이 아니라 한 가지 악기를 제대로 연주할 수 있게 돕는 U2Can 프로그램으로 나의 가능성 하나를 열어둔다면 미래에 큰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 실력보다는 과정과 경험이 의미 있기에 많은 학생이 U2Can 프로그램에 도전하기 바란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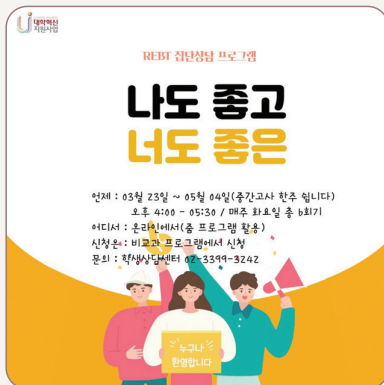
작성자 | 양은솔



✦ 2021학년도 1학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자아성장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2020 학생상담센터 요구도에 따라 심리검사, 자존감 향상, 대인관계, 스트레스, 진로 및 적성, 학교 적응, 정서 조절 등의 주제와 관련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심리검사를 통한 개인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집단원과의 소통을 통해 자기 객관화 및 자기 수용의 기회 제공
- 새로운 관계 형성의 만남의 장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대인관계 욕구 해결 제공
-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진행
- 상담관련학과 석사과정 이상의 강사를 모집하고 한 집단당 최소 2회기 이상, 4인 이상의 집단원으로 구성
- 소통역량, 자기주도, 나눔실천 역량 증진

★ 2021학년도 1학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소개



나도 좋고 너도 좋은 REBT 집단상담 프로그램

- 긍정적 자기개념을 확립하고 싶은 분
 - 비합리적 신념으로 힘든 사람들 모여라!
- (3월 23일 ~ 5월 4일, 총 6회기 진행하는 온라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REBT

#온라인집단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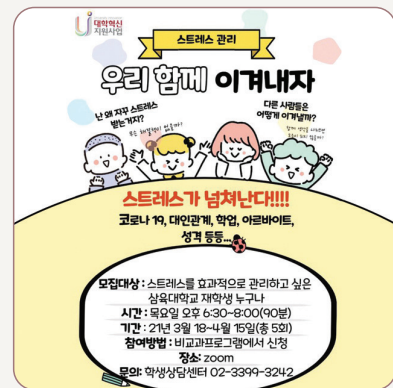
#삶의질높이기

스트레스 관리, 우리 함께 이겨내자

- 다른 사람들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
 - 코로나19, 대인관계, 학업, 아르바이트, 성격 등 스트레스에 지친 삼육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 (3월 18일 ~ 4월 15일, 총 5회기 진행하는 온라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스트레스관리

#온라인집단상담



독서를 통한 영적 안녕 및 대인관계, 독서 커넥트

- 독서 비구조화 집단상담
- (3월 17일 ~ 5월 12일, 총 8회기 진행하는 온라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독서

#온라인집단상담

#자기탐색

미래의 저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천년의 수업

- 진로 및 적성에 대해 고민과 걱정이 많은 학생들 고고!!
- (3월 22일 ~ 4월 12일, '학생회관 신문사'에서 진행되는 비대면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로적성

#온라인집단상담

#비대면



타인을 통해 나를 마주하는 힘

Encounter Group

참만남 집단 모집합니다

대상자 : 삼육대학교 학부생
기간 : 4월 2일 ~ 5월 14일 / 매주 금요일 / 총 6회
시간 : 오후 2시 ~ 3시 30분 (90분)
장소 : 대학교 프로그램에서 진행
비고 : ZOOM으로 진행
* 참여비지 않음과 비대면 참여 가능
* 스터디원보다 10% 이상 수료 가능

*** 참만남 집단이란?**
자신-타인에서 느끼는 생생한 감정을 집단원과 자유롭게 주고 받으며, 있는 그대로의 내가(우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 이러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나의 마음을 더욱 잘 알아차리고 느끼고 싶다.
-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다.
- 나의 모습을 다른 이들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싶다.
-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욱 잘 이해하고 이해받고 싶다.
-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싶다.
- 진짜 내가 되고 싶다.

문의 : 삼육대학교 학생상담센터 (02-3399-3242)

타인을 통해 나를 마주하는 힘, 참만남 집단상담 프로그램

- 나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싶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 나의 모습을 다른 이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며 소통하고 싶으신가요?
- 생생한 감정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되어 보아요!
(4월 2일 ~ 5월 14일, 총 6회기 진행하는 비구조화 온라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나를만나다

#온라인집단상담

#참만남

나도, 너도 다 괜찮다

- 열심히 하는데, 하고자 하는 일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 속상하신
삼육대학교 학생분들 여기 주목!
- 실수해도 괜찮아. 회복탄력성 프로그램
(4월 8일 ~ 5월 20일, 총 6회기 진행하는 온라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회복탄력성

#온라인집단상담

삼육대학교 학생상담센터 (02-3399-3242)

나도, 너도 다 괜찮다

대상자 : 일이 마음과 같이 안 돼서 속상한 삼육대 8명(선착순 마감)
기간 : 2021.4.8 ~ 5.20 (4/20 시합기간 주 제외, 총 6회)
- 동료 일하는 집단원들과 협의 후 조율 될 수 있음
시간 : 매주 목요일 2시 ~ 4시(2시간)
장소 : 각자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참여,
온라인 화상(ZOOM 프로그램)으로 만남
신청 : 비구조화프로그램에서 신청
문의 : 삼육대학교 학생상담센터 (02-3399-3242)

"책"을 창조한 지혜의 향기 코르도발

오늘부터, 나에게 집중

나를 사랑하고 싶은 8명의 삼육대
21. 5. 4 ~ 6. 8 (주 1회, 총 6회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3시30분(1시간 30분)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ZOOM프로그램 활용)
비교과프로그램에서 신청

문의 : 삼육대학교 학생상담센터
(02-3399-3242)

오늘부터 나에게 집중

-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시간, 책을 통한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
-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내 자신을 아낄 수 있어요
(5월 4일 ~ 6월 8일, 총 6회기 진행하는 온라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나를사랑하기

#온라인집단상담

#자존감향상

주기적인 마음돌봄이 필요한 시대이다. 마음돌봄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집단상담을 통해 어떻게 자신을 돌봐야하는지 알아가기를 바란다.

* 모든 집단상담은 80% 이상 수료 시 마일리지 적립가능

뚜벅뚜벅 건강한 습관형성 “천보당 만보당”

작성자 | 김예동



+ 천보를 걷는다면 만보도 마땅히 걸을 수 있다! MVP+ 교육 “천보당 만보당”

이번 학기 MVP+ 교육 프로그램인 ‘천보당 만보당’은 걷기습관을 형성하는 건강증진 활동으로, 학생들의 5주간 걷기 활동을 목표로 한다. 19, 20, 21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학기 신청자는 643명이다. 프로그램은 1주차부터 1일 6,000보 걷기를 시작으로, 매주 1,000보씩 늘려 마지막 5주차에는 1일 10,000보의 최소 걸음 수를 채워야 한다. 또한 한 주에 최소 4회 이상 걷기 활동을 하고 주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MVP+ 교육’은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5~21명 수준의 팀별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팀 프로젝트의 수행에 제약이 생기면서, 인성교육원 측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혼자, 언제, 어디서든’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 천보당 만보당 담당자 인터뷰 정희원(조교)

Q. ‘천보당 만보당’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를 방문하지 못하고 대면 활동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기존의 MVP+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본인이 있는 곳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대면으로 만나지 않지만 참여하는 학생들이 한 목적성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연하지만 학교 및 학생들 간의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지기를 희망하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Q. ‘천보당 만보당’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천보당 만보당’을 통하여 가장 먼저 학생들이 건강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자연스럽게 집에만 있게 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루 중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가 일상의 활력을 얻고 무기력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습관 형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라도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걷는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어 건강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면에서도 좋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Q. 마지막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자랑해주세요!

‘천보당 만보당’은 19학년부터 21학번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 형성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천보당 만보당’ 걷기 프로젝트를 이수할 경우 졸업 필수 요건인 MVP+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또한 5주간의 모든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으로 우수활동(걷기왕)상금과 수기공모전이 있습니다. 우수활동상금은 5주 동안 누적된 걸음 수와 주간보고서 성실도를 비교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상금이고, 수기공모전 상금은 ‘천보당 만보당’ 걷기 프로젝트를 이수한 학생 중 정해진 주제에 따라 제출한 에세이를 평가하여 지급되는 상금입니다. 모두들 2학기에도 진행되는 ‘천보당 만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함께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고 상금까지 목표로 해보아요!

+ 천보당 만보당 참여 학생 인터뷰 정채영(신학과 20학번)

Q. ‘천보당 만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MVP+ 교육을 이미 이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떨지 물어봤습니다. 평소 저와 친구 모두 각자 바쁘게 생활했기 때문에 둘이 대화를 하거나 산책을 할 여유가 없어 친구와의 관계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보당 만보당’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Q.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산책하러 나가자’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또는 제가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좋아’라는 답을 듣는 것이 사소하지만 큰 행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하루 일과를 마치면 지친 상태로 방에 들어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저녁마다 친구와 캠퍼스를 돌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산책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을 때에 아름다운 캠퍼스의 모습에 감사함을 느끼며 마음에 여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Q. 프로그램을 통해 얻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첫 번째, 걷는 습관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휴대폰의 만보기 어플을 자주 확인합니다. 만보기에 적힌 수가 적게 느껴지는 날이면, 숫자를 늘리기 위해 더욱 많이 걸으려고 의식합니다. 일부러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에 행복을 느낄 때도 있지만, 가끔씩 혼자 걷는 시간이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거나 스스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입니다. 저는 평소에 장이 좋지 않아서 항상 배가 더부룩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주 걷는 습관이 생기다보니 소화가 잘 되어서 불편한 느낌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 □ _

어떻게 하면 이 프로젝트를 다함께 더욱 즐겁고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인성교육원은 SNS로 함께할 수 있는 ‘천보당 만보당 21일 챌린지’를 준비했다. 각자 자신이 희망하는 주제를 정하여 21일간 자신의 계정 스토리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공유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과 함께 21일 간의 변화를 기록하며 더욱 보람차게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보자.

문화교류의 장, 외국인 말하기대회

작성자 | 조윤아



우리 대학 국제교육원에서는 지난 5월, 제3회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학생들은 ‘외국인과의 연애’, ‘한국어 줄임말에 관하여’,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유학기’ 이렇게 세 가지 주제 중 하나를 택하여 각자의 발표를 진행하였다.

심사위원들은 ‘멘토-멘티 간 소통(협동심)’, ‘주제 선정’, ‘발표 내용의 적절성’, ‘시각 자료 활용’, ‘시간’, ‘한국어 억양’, ‘발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무관중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줌(ZOOM)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를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지만, 올해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무사히 대회를 끝마칠 수 있었다. 자세한 소감을 알아보기 위해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유학생, 한국인 재학생 총 두 명의 대표 학생들 그리고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번 인터뷰를 토대로 삼육대학교 재학생들이 해당 대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가하여, 훗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 참가 학생 인터뷰

PIAO YANLING(아트앤디자인학과)

Q. ‘글로벌투게더 외국인 말하기대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대중들 앞에서 조리 있게 발표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참가했습니다. 더하여, 최근 친해진 한국인 친구와 함께 참가해 추억을 쌓고 싶었습니다.

Q. ‘글로벌투게더 외국인 말하기대회’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 그리고 이 프로그램만의 장점을 소개해 주세요.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는 것이 이번 대회의 장점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학생들이 각자의 스타일과 내용으로 재미있게 발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흥미로웠습니다.

Q. ‘글로벌투게더 외국인 말하기대회’ 준비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대회 전날 밤늦게까지 한국 친구와 밥을 먹으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이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Q. 여러 가지 발표 주제 중, 해당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조는 ‘유학 생활’을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4년 동안의 유학 생활을 거의 끝내고 있었고, 저의 이야기를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Q. 이 프로그램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세요.

유학 두유들, 너의 목소리를 보여줘!

✦ 참가 학생 인터뷰

권병민(상담심리학과 18학번)

Q. ‘글로벌투게더 외국인 말하기대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자신감을 얻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떨지 않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후자는 실패했지만요(웃음).

Q. ‘글로벌투게더 외국인 말하기대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나요?

멘토인 한국인 재학생이 2분, 멘티인 외국인 유학생이 5분 동안 미리 제작한 PPT자료와 함께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Q. ‘글로벌투게더 외국인 말하기대회’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 그리고 이 프로그램만의 장점을 소개해 주세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재학생이 서로 친해질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회를 통해 외국인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Q. ‘글로벌투게더 외국인 말하기대회’ 준비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발표를 연습하는 과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공은 제가 아닌 외국인 친구이기 때문에, 멘티의 발표 비중이 컸습니다. 연습할 때 많이 고생하는 모습이 보여서 미안하고, 열심히 해줘서 고마웠던 기억이 납니다.

Q. 여러 가지 발표 주제 중, 해당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학 생활’을 주제로 했습니다. 주어진 주제가 세 가지밖에 없어서, 선택의 폭이 조금 좁다고 느꼈습니다. 외국인과의 연애를 말하자는 경험이 없었고, 줄임말을 하기에는 재미는 있지만 임팩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의 스토리를 녹여낼 수 있고, 감동과 재미를 함께 선사할 수 있는 주제인 유학기가 가장 적합했습니다. 요즘같이 여행하기 힘든 시기에 잠시 여행 기분을 낼 수 있도록 컨셉을 삼육 항공으로 정했고 이와 어울리는 주제 또한 유학기였습니다.

Q. 이 프로그램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세요.

두유 wanna be my friend?



+ 담당자 인터뷰

윤현정, 현세훈(국제교육원)

Q. ‘글로벌투게더 외국인 말하기대회’를 주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먼저 ‘글로벌투게더 외국인 말하기대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국고사업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국제교육원은 대학에서 한국인 학생, 유학생이 보다 활발하게 교류함으로써 서로 간의 문화를 이해하고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Q. 그동안 진행해왔던 것과 비교했을 때, 올해 2021-1 ‘글로벌투게더 외국인 말하기대회’의 변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말하기대회는 올해 3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는 대회가 이루어졌지만 지난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항상 관중 앞에서 발표를 진행했지만, 이번 2021년도에는 학우분들의 안전을 위해 무관중으로 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조별로 들어오는 입장시간을 다르게 하여 보다 안전하게 대회를 진행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Q.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참가자 분들에게 발표가 끝나면 퇴실해도 된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참가자분들이 발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우들이 발표하는 것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Q.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국인 학생과 유학생 모두를 포함한 삼육대학교 재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Q. 어떠한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유학생을 사귀고 싶은 학우분들과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유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Q. 이 프로그램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세요.

외국인 말하기대회는 문화교류의 기회가 있다!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대해 알아보자!

작성자 | 양은솔



+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이란?

캡스톤디자인의 사전적 의미로는, 공학 계열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졸업 논문 대신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 과정을 뜻합니다.

즉, 교육과정 중 습득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과제를 기획하고 제작 및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는 교과목입니다.

현재 우리 삼육대학교에는 전공과목에서부터 교양과목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캡스톤디자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전제조건

- 1) 과목명에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또는 “종합설계”가 부기되어야 함.
- 2) 과제는 팀 단위로 부과되어야 하며, 학기 단위로 운영되어야 함.
- 3)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실험·실습비가 지원 되어야 함.
- 4) 캡스톤디자인의 목적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하며,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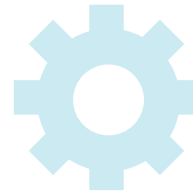
✦ 2021년도 1학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수강 학생 인터뷰

엄강현(생활체육학과 4학년)

Q. 현재 수강 중인 캡스톤디자인 과목에 대해 간단한 소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캡스톤디자인이란, 쉽게 말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이론을 바탕으로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여 창의적 기술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매우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는 캡스톤디자인 수업 종류 또한 다양합니다. 그중 제가 듣는 캡스톤디자인 과목은 '한국문화와 움직임 예술'입니다! 이 과목은 한국문화 속에서 자연 발생된 움직임의 본질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동작을 습득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보급하는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기초 교양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나의 창의성과 실무능력, 학교를 다니면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이나 팀 등 업체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수업을 통해 실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캡스톤디자인은 본 취지가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경험 습득인 만큼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함으로써 몸으로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강의는 이론을 중심으로 배우게 되는데, 아무리 이론을 배워도 실무에서 적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캡스톤디자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운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과목을 수강함에 있어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팀원들의 집이 멀리 떨어져서 모이기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캡스톤디자인은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경험'이기 때문에 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과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론만 듣게 될 경우 캡스톤디자인만의 특성이 사라지며, 타 강의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주된 목적이 경험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을 하는 것에 제한이 많아져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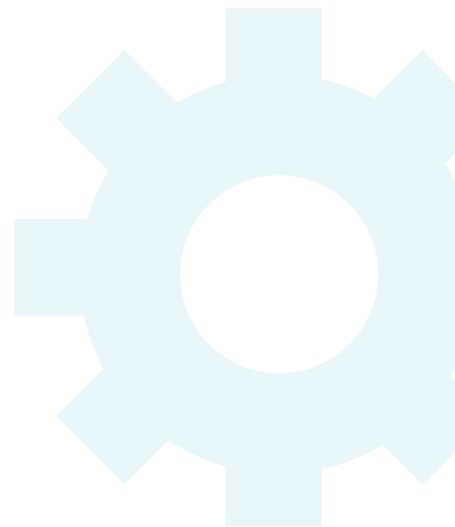
Q. 어떤 학우들에게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우들에게 추천합니다. 취업하고 싶은 기업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이해하고 이 수업을 통해 기획하고 실행하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통해 무언가 얻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수강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저는 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단순 이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학생과 사회를 연결 지어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창 시절부터 차근차근 쌓아온 지식을 대학과정에서 구체화한 뒤 캡스톤디자인을 통해 적용해봄으로써 사회에 나가기 전 초석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꿈이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캡스톤디자인을 수강해봄으로써 다양한 실무 경험이 앞으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데, 각자가 희망하는 사항들을 모두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기회주신 김지현 선배님 감사합니다.





✦ 캡스톤디자인 담당자 인터뷰

김지현

Q.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감이 궁금해요!

캡스톤디자인 수업의 경우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더욱 생기있고 에너지 넘치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실무자로 학생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들과 유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에너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을 위해 업무를 하는 이 순간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어떤 학생들에게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모든 학생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대학은 전통적으로 교육과 연구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지식을 창출하고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회의 요구와 변화에 따라 대학의 역할 또한 교육과 연구중심의 기능뿐만 아니라 실무중심의 산학협력 교육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학 졸업 후 사회로 진출을 했을 때,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더 나은 역량을 발휘하는데 그 초석이 캡스톤디자인 수업이 될 수 있기에 모든 학생이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수강했으면 좋겠습니다!

Q. 담당자분이 생각하시는 캡스톤디자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대학에서 배운 전공 이론과 지식을 현실, 현장에 직접 적용하고 실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산업체 혹은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졸업 후 현장,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장점이 있는 수업입니다!

Q. 마지막으로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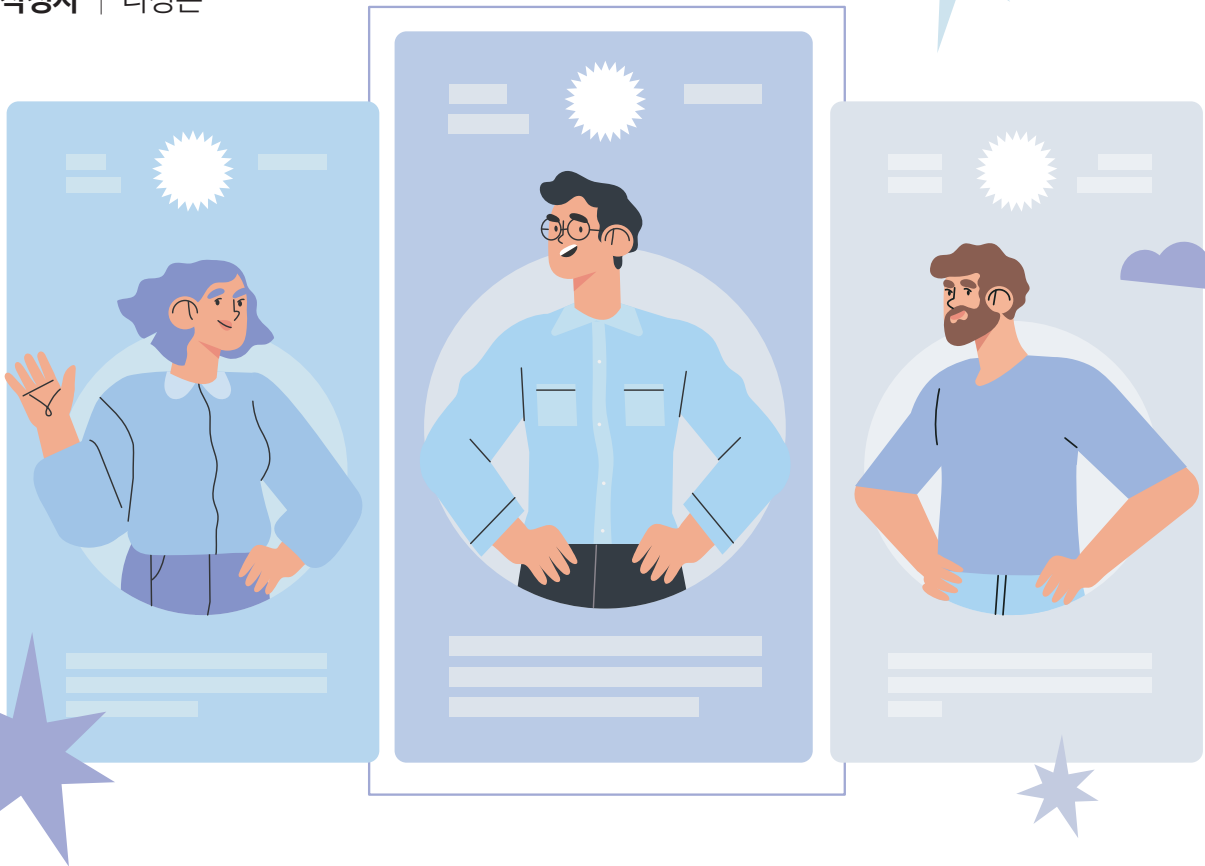
반두라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아시나요? 자기효능감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 또는 기대감'입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큰 자신감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쉽게 도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기효능감은 어떠신가요? 주어진 과제들을 스마트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소 자신감이 낮은 상태이신가요? 현재 수강 중인 캡스톤디자인 수업,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에게 버거우신가요? 아니면 거뜰하신가요?

Robert Noyce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경탄할 만한 것을 이루어 내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 상태는 미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캡스톤디자인 과제, 프로젝트가 쉽든 어렵든 전심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그 결과는 과연 성공적일 것입니다. 이 성공이라는 경험을 통해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 자신감은 더 나은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청소년 금연, 금주 우리가 책임진다!

깨끗한 사회를 위한 학생들의 노력

작성자 | 나상은



+

우리 대학에서는 건강증진 및 건강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건강과학특성화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지도사 프로그램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간호학과, 약학과, 보건관리학과를 비롯하여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관심을 두고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지도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지도사

우리 대학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지도사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실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초점이 잡혀있다. 청소년 흡연, 음주는 성인의 흡연, 음주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맞춰 우리 대학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각 연령별 흡연, 음주의 실태와 원인,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며 청소년기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접근법이 필요한지 본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법 같은 것을 통해 그들과 진심 어린 상담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청소년들이 그 연령대에 관심을 두는 것들을 비롯하여 흡연, 음주의 대체재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다양한 것을 가르쳐주며 각 학과 학생들은 본인들의 가진 강점을 가지고 흡연, 음주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일정 시간을 전문가들로부터 학습을 한 후, 학습 내용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게 될 경우 합격하게 되며,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최근 화기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지도사 자격증은 학과 사무실로 배송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학교생활 중 이런 양질의 전문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자격증을 받게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며, 만족도 또한 어느 프로그램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커뮤니티 케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우리 대학 건강과학특성화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면 좋을 것이다.



✦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지도사 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 인터뷰 오수현(약학과 18학번)

Q. 본 프로그램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소에 아동, 청소년의 보건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대학에서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줘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약사로서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 친구들도 만나게 될 텐데, 본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어린 학생들이 술과 담배라는 유해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Q.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지도사 프로그램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흡연, 음주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남학생들의 흡연, 음주율이 높은 것에 충격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년간의 교육과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흡연, 음주율이 낮아지는 것을 보며 안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지도사로서 저도 노력을 하게 되면 청소년 흡연, 음주율도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Q. 전공과 연관된 부분도 있었나요?

네, 정말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술과 담배는 항정신성 약물로 전공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듣는데 집중도가 더 높아질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전공과 연관된 부분이 많다 보니, 전공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라서 복습의 효과도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포부를 말해주세요.

지역 약사로서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사가 되고 싶어요. 약사는 좁은 약국에서 따분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그 좁은 공간 안에서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정말 좋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진행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흡연, 음주를 그만둘 수 있도록 잘 지도하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 프로그램은 물론이거니와 심폐소생술 자격증 등을 공부해가며, 보건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지도사 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 인터뷰
 나상은(약학과 18학번)

Q. 본 프로그램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방약학이라는 전공 수업을 들으며, 약사가 단순히 약물에 관한 학문적인 공부만 몰두하는 존재가 아닌,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 다양한 물질과 사회 현상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지도사 프로그램이 제 전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지도사 프로그램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요?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걸 보면 일반적으로 그 학생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비행 청소년이라는 딱지로 어른들이 먼저 손을 놓아버리면, 오히려 아이들은 마음에 상처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인 문제로 본 다음에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전공과 연관된 부분도 있었나요?

약물학, 생약학, 예방약학 등 다양한 전공과목에서 해당 약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약학과에서는 알코올이나 니코틴뿐만 아니라 타르,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물질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청소년의 흡연, 음주를 단독으로 집중하여 공부한 적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특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부한 것이 의미 깊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Q. 앞으로의 포부를 말해주세요.

사회로 나가 약사가 되었을 때, 저 덕분에 건강해지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 학생들이라면, 흡연, 음주의 유해성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심신이 건강하게 자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공 학습뿐만 아니라 이러한 건강과학특성화사업단의 비교과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회에 도움 되는 약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사람이 좋아지는 감성캠핑 “HOPE CAMP”

작성자 | 김예동

X O _



나에게로 떠나는 감성여행 “HOPE CAMP” 란?!
캠퍼스에서의 ‘1박 2일’ 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과의 만남을 지양하는 언택트 시대 속에서,
공존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지치고 외롭고 무기력해질 뿐이다.
인성교육원은 이러한 사회의 모습 속에서 무너져 가는 ‘나’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을 되찾길 바라며 HOPE CAMP를 열었다.



✦ HOPE CAMP 담당자 인터뷰

이진환(인성교육원 HOPE CAMP 담당)

Q. 'HOPE CAMP'는 어떤 프로그램이며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HOPE CAMP는 '교내에서 즐기는 나와 떠나는 캠프'라는 모토를 가지고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로 나가기 전 가치관이 형성되는 '대학'이라는 곳에서 하루나마 학생들이 조용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프로그램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야외스크린으로 영화도 보고 라면도 끓여먹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첫 야외 취침이 될 수도 있고 불 앞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 분명 '이렇게 힐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Q. 'HOPE CAMP' 프로그램은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나요?

HOPE CAMP는 코로나19라는 질병의 등장으로 '연택트'가 형성되며 교류가 제한된 학생들을 위해 '나와 나의 교류', '나와 너의 교류'를 소소하게나마 만들어주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삼육대학교의 좋은 환경과 특색을 살려 '캠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HOPE CAMP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HOPE CAMP'를 통해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저희 HOPE CAMP 운영진들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거창하게 무엇을 배우거나 큰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소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활을 되돌아보았을 때 좋은 기억으로 추억되고,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 한 사람이라도 좋은 친구로 남아있기를 바라봅니다. 무엇보다 HOPE CAMP의 추억으로 '함께'하는 즐거움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면 저희는 학생들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HOPE CAMP는 현재 학기가 시작되면 매진 될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 학기도 종강 때까지 전부 예약이 꽉 차있는 상태입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이 "또 와도 돼요?"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희 운영진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니깐요 혹시 아직도 고민이 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학기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꼭 캠핑장에서 만나요 :)

✦ HOPE CAMP 참여 학생 인터뷰

권숙현(상담심리학과 21학번)

Q. 'HOPE CAMP'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친구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걱정되고, 여러 사람과 어울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 비교적 안전한 학교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며 친구들과 1박 2일로 캠핑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Q.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활동은 무엇인가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 앞에서 꼬치와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면서 사람들과 도란도란 이야기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에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혹시 스모어가 어떤 음식인지 아시나요? 저는 HOPE CAMP에서 처음 먹어 봤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비스켓에 누텔라를 바르고 마시멜로를 구워서 샌드위치처럼 먹는 과자! 모두들 HOPE CAMP로 오셔서 꼭 드셔보세요!

Q.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1박 2일 정말 행복하게 보내서 크게 아쉬운 점은 없었지만, 굳이 한 가지를 꼽자면 모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이 산이어서 그런지 산 모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쫓아내려고 가방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너무 재밌는 기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Q. 프로그램을 통해 얻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HOPE CAMP에 참여하기 전 저는 과제와 아르바이트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조금은 지쳐있었습니다. 캠프를 시작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냥 기숙사에서 살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만큼 많이 지쳐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캠핑을 하는 시간만큼은 쉴 틈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고, 좋은 사람들과 시원한 공기를 마시던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 다시 앞으로 나아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쓴 일기나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Q. 끝으로 HOPE CAMP를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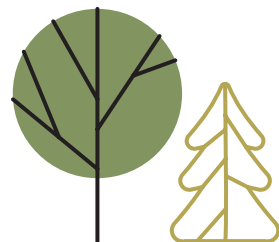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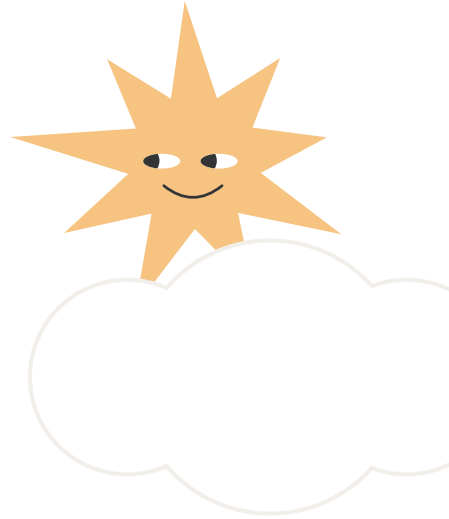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호프캠프(HOPE CAMP)로 4행시 해보겠습니다.

호: 호호 하하 웃으면서 힐링하고 싶지 않나요?

프: 프라블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지 않나요?

캠: 캠핑 하면서 불멍 때리고 힐링하고 싶다면 여기로 와요.

프: 프로 캠핑러들이 널 위해 다 준비했으니까 넌 몸만 오면 돼.



× □ _

라면을 끓여 먹으며 오롯이 나와의 식사시간을 가져보는 '나 혼자 저녁식사', 낭만적인 영화관 '담요 시네마', 불 앞에 모여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별이 빛나는 밤', 잠들기 전 나와 하루를 돌아보며 쓰는 일기까지! HOPE CAMP에 참여하여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고, '너'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우며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지성인으로 한걸음 나아가보자.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University innovation
대학혁신지원사업

Designed by yoilchoi.com